

# 정례브리핑

2020.6.29(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의 일정입니다. 차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7시 50분 국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내일이 판문점 남·북·미 회동 1주년인데요. 현재 북한이 대남군사조치를 보류하긴 했지만,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속도감을 못 내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주신 질문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 관련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가면서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 관련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법안 동향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지금 탈북민단체, 두 단체에 대해서 청문절차 진행 중인...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문절차라는 게 누가 참석... 그러니까 통일부 직원들만 참석을 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이를테면 청문이 끝나고 나서 다수결이나 이런 식의 결정이 이뤄지는 건가요? 절차를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 질의하신 청문은 지금 오늘 오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청문이 끝나면 그 경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대해서는 외부인인 회의 주재자가 있고 그리고 예정된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단체 그리고 소관, 통일부의 소관 실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이, 청문에서 소명된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청문에서 나타난 청문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

이 됩니다.

**<질문>** 보면, 당초 법인설립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큰샘'이 원래 법인설립할 때 목적은 어떻게 명시가 돼 있나요?

**<답변>** 원래의 그것은 두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시다만 오늘 출석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 '큰샘' 같은 경우에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활동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쪽 계속 여쭙볼게요. 청문 이후에는 바로 취소결정으로 가는 것인지, 청문 이후 절차 여쭙보고요. 법인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시오.

**<답변>** 취소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문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이해관계자의 열람이 이루어진 다음 행정처분을 밟는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 등록단체로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 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 후속절차에 따라서 해제가 되면 공공모금... 공식적으로 또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질문>** 공식모금은 못 한다고 하셨는데 기부금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기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내겠다고 하면 그냥 돈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오늘 청문절차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취소절차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답변> 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제가 그것을 예단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청문이 진행되고 다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과가 진행된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일부 산하 단체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법인을 어떤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 과거에 등록단체가 취소된 경우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질문> 아까 이제 단체가 취소되면 증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증여세 부분을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를 하겠다거나, 증여세 한도 이하의 후원을 계속 하면 정부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네요?

<답변> 정부가 지금 등록단체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에서 평양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과 생활용수, 채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결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평양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지금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아사히가 중국의 민간자본을 배로 실어서 지금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신빙성 있는 관측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평양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북제재 상황하에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약 95%를 차지하는 북한의 대중 무역이 폐쇄되어서 현재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아사히 보도와 관련해서는 소식통을 인용한 외신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여전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저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회의라든가 최근에 내각, 김재룡 총리 회의를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개학식이라든가 또 하나는 원격수업 등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런 코로나19가 없다는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그거는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코로나 상황에서 예방행위를 하는 것은 구

분이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공식, 북한 공식...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하고 또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식당국의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련의 화상회의는 세계 여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